

중국면

중국은 최대 면화 생산국이며 동시에 최대 면화 수입국이기도 하다. 중국이 세계 면화 시장에서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면화 재배에 대하여서는 해남도나 운남성 부근에서 기원전부터 면화 재배가 있었다는 설도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고, 최근의 면화 재배는 황하 유역에서 양자강 유역에 이르는 소위 화북과 화중이 일단 중심지가 되어 있다. 양적으로는 화북의 산둥성, 하북성, 하남성, 그리고 화중에서는 호북성, 강소성의 5개성이 중국 면화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요 지역이다.

중국의 면화도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 변수 소재에서부터 태변수용까지 다양하다. 태변수용으로는 호북성, 강소성, 산둥성의 하급품, 중변수용으로는 신장자치구, 산둥성, 호북성, 강소성, 안휘성 등에서 나오는 면, 세변수용으로는 신장자치구의 면화로 구분된다.

중국은 2010년 현재 650만 농가가 500만 헥타르의 면화 재배지를 이용하여 3천100만 배일(2008/9년 기준)의 면화를 생산하여 세계 1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2003년 중국 농업과학원 면화연구소와 우수품질 면화기지 과학기술복무센터에서는 과학적인 면화 재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1)전면적인 면화 품질의 제고, (2)하이브리드 면화 품종의 확대보급, (3)재배기술의 표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4)면화 재배 정보의 공유체제로서 면화 생산전 정보화, 생산중의 과학화, 생산후의 시장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면화의 형질전환 기술체계(Transgenic Technical System of Cotton Commercialization)가 성공을 거두어 이미 20가지 이상의 주요 면화 품종이 새로 개발되었으며, 유전자 주입기술을 통해 생산된 면화 신품종이 90% 이상의 좋은 작황을 보이고 있다.

원래 초장섬유질 면화 재배로 유명한 신장자치구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신장 최대의 면화 생산지인 타리무 분지에서 최근에 신장 스허즈 대학 면화연구소에서 지도하고 보급한 면화가 13만 헥타르에서 헥타르 당 9,900kg의 높은 생산성을 올려 면화 단위

당 최대 수확고의 기록을 세웠다. 농업선진국이라도 헥타르 당 면화 생산량은 8,000kg을 넘지 못하는 현실에서 나온 기록이다.

신장자치구 정부는 계속 면화 생산기지 건설에 투자 중이며, 3007년 중국 면화 생산 총량 750만 톤에 대하여 신장지구면 270만 톤을 생산하였다.

신장지구는 기존 면화의 단위당 수확고가 헥타르 당 3000kg이라는 핵심기술을 갖고 있다. 신장지구의 면화 생산은 이미 연속 18년째 재배면적, 단위당 수확고, 생산량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중국 생산량의 1/3, 전 세계 생산량의 1/9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지며 확대될 전망이다. ♣(공석봉)

